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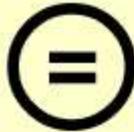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소설 텍스트 읽기와 글쓰기의
통합지도 방법연구



2008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임 현 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소설 텍스트 읽기와 글쓰기의
통합지도 방법연구

지도교수 남 송 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임 현 진

임현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27일



주 심 문학박사 송 명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남 송 우 (인)

위 원 문학박사 조 동 구 (인)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5
3. 연구 범위와 방법	10
II. 이론적 배경	12
1. 통합 언어교육과 국어교육	12
2. 문학과 읽기·쓰기 통합교육	16
3.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 이론	20
III. 소설 텍스트와 글쓰기 통합지도 방법	28
1. 설명적인 글쓰기의 개념과 관련 학습요소	28
가. 설명적인 글의 정의	28
나. 소개문과 기사문 지도 관련 학습요소	31
2. 소설 텍스트와 글쓰기 통합 지도 모형 탐색	32
3. 소설 텍스트와 글쓰기 통합지도 방법	36
가. 소개문 쓰기를 위한 활동	39
나. 기사문 쓰기를 위한 활동	41
IV. 소설 텍스트 읽기와 글쓰기 통합지도 활동 방안	44
1. 소개문 쓰기	44

2. 기사문 쓰기	53
V. 결론	61
참고문헌	64



A Study on The Integrative Teaching Method of Novel texts
Reading and Writing

Hyun Jin L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Integrative Teaching Method of Novel texts Reading and Writing.

Although reading and writing are interactive language skills, they are educated as separated segments in a curriculum. But reading and writing are similar in requiring comprehensive and analytic thinking. So reading and writing is considered as separated segments, but we need to integrate them through practical activities.

With this necessity, this study researches the method of explanation writing as The Integrative Teaching Method of Novel texts Reading and Writing. The Integrative Teaching Method of Novel texts Reading and Writing is based in the point that the characters of skilled writers can be developed by Whole language education. The Integrative Teaching Method of Reading and Writing based on the steps of reading and writing of Squire with the ground that reading ability will be developed best in association with writing activities.

Based on the above theoretical background, the method of explanation writing teaching using the knowledge of the characters, events and background of novel text is suggested. Because the writing activity through the novel text reading is the goal of this study, integrative method is the writing activity of introduction and report using the questions of the phases (pre-reading, while-reading, post-reading) of novel text reading lesson.

And the example questions are made using the text, "Wonmi-dong people by Yang Gwi-ja" of third grade. The writing method using pre-reading, while-reading and post-reading phases is suggested. In this method, students can write introduction using they find about the novel and write report based on the structure of novel. The questions and answers of writing activity are suggested and the aims of teaching, the consideration, the evaluation criterion, teaching plan are suggested. It will be useful method because the novel texts in a curriculum are used and it is suitable for the system of the tex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followings:

First, reading ability and writing ability can be developed best through practical activities.

Second, introduction and report writing after novel text reading, students can use the activated background knowledge and content knowledge in writing activities.

Third, it makes students pay attention to the content and understand the structure, the characters, the background and conflicts of the text for writing activities.

At last, The Integrative Teaching Method of Novel texts Reading and Writing activities are suitable for the system of textbooks and curriculum. And they are made as a activities of summary part of the textbook unit and the writing activities are based on the given examples of the textbooks. Therefore, this method can be used in the real class.

The Integrative Teaching Method of Novel texts Reading and Writing will contribute to enlarge the area of the writing teaching.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어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능력 향상’이다. 국어사용 능력이란 기존 지식의 단순 수용이나 표출 능력이 아니라,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사고(의미)와 언어를 연결지어야 하는 지적기능(地積機能,intellectual skill)으로서의 고등 정신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기능이 아닌 의미를 언어화(표현)하고 언어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재구성(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의 학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에 효과적으로 신장되는 능력이다.¹⁾

정보가 넘쳐나고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어사용 능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국어 교육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의견을 정립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다매체 시대에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해 특히 주목 받는 것은 표현의 영역인 말하기와 쓰기²⁾ 교육이다. 특히 쓰기 교육은 인터넷이 쌍방향 매체로 부상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실제 쓰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쓰기 교육은 표현능력을 길러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쓰기활동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수업 시수 등의 교육여건이나 ‘국어’교과서의 ‘읽

1) 교육인적자원부, 「국어과의 성격」, 『7차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 1997.

2) 현행 교육과정은 중학교 과정에는 ‘쓰기’를, 고등학교 선택 교과에는 ‘작문’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쓰기’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인용 글에서 ‘작문’을 쓰고 있을 때에는 그대로 옮긴다.

기'와 '문학' 텍스트의 강의식 수업이 일반적인 교육과정 체계에서 '생활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쓰기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 또 '국어'와 '생활국어' 교과서를 위한 수업 시수를 동등하게 배분한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달리 학교 현장은 '국어'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한다. 그래서 '생활국어' 교과서의 쓰기 단원은 생략하거나 지식적인 내용만 강의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에는 문학 작품이 많이 활용된다.”고 문학 작품을 국어교육의 기본이 되는 텍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를 가치 있는 읽기 자료로 보고 문학을 의사소통 과정에 놓인 것으로 보는 기능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 문학 텍스트가 국어교육의 기본 텍스트라면 이를 이용한 교육이 '읽기' 영역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쓰기' 활동까지 포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시작이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언어활동은 실제로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으며 통합된 형태로 실행되고 그에 수반하는 기능 또한 명확히 분리할 수 없다. 이러한 통합교육⁴⁾은 현 교육의 지향점인 학습자 중심, 맥락중심 언어교육과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읽기와 쓰기는 글을 매개로 하며 유사한 의미 구성과정을 거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통합 언어 교육 연구의 주목 대상이 되어왔다. 여기서는 읽기 텍스트로 소설을 한정하여 쓰기와 통합한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설은 산문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같은 통합적 언어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학텍스트이다. 소설은 다양한 삶의 이야기이며, 작가의 상상력

3)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교과서는 '국어'와 '국어생활'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어'에는 읽기와 문학이, '국어생활'에는 '듣기', '말하기', '쓰기', '국어지식'의 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 통합은 '부분을 연결해 전체로 만드는 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도 영역간의 구획과 단원의 구분이 없이 통합된 교육을 말한다.

의 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또 하나의 창조된 세계로, 소설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에 가장 어울리는 문학 갈래이기도 하다.⁵⁾

‘국어’ 교과서에는 단원별로 ‘학습활동’이 있다. 문학의 갈래인 소설이 중요한 텍스트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 관련 학습활동은 내용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간단히 말해보자”나 “~답해보자”같은 활동이 대부분이다.⁶⁾ 쓰기 활동이 있다 해도 피상적인 ‘친교나 정서 표현의 글쓰기 활동’⁷⁾에 그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교과서 중에서 소설 텍스트가 나타난 소단원에 한정해서 쓰기관련 학습활동의 형태를 간략하게 분석하면 첫째로 중학교 1학년 2학기 2단원의 <소나기>의 ‘이 소설을 읽고 느낀 감동을 적어보자.’나 1학년 2학기 6단원 <숨 쉬는 영정>의 ‘다음 글을 읽고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지 써보자.’와 같은 정서표현의 글쓰기인 ‘감상문 쓰기’유형이 있다. 그러나 감상문 형식으로 완성하기 보다는 소설을 읽고 느낀 감상을 단순히 나열하는 활동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 활동의 결과는 ‘소녀가 죽어서 슬프다. 둘의 순수한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어머니가 무척 슬펐을 것이다. 비장한 각오로 아들을 보냈을 것이다.’ 정도의 단 몇 줄의 문장이나 채 한 문단이 되지 않는 글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형식적으로 완결된 글쓰기를 유도하고 있는 유형도 1학년 2학기 2단원 <소나기>의 ‘소녀의 처지에서 소년에게 편지를 써보자.’나 1학년 2학기 6

5) 이후석, 「읽기쓰기를 통합한 소설지도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05.

6) 국어 1-1, 6.(3) 옥상의 민들레꽃 의 학습활동을 예로 들면 “내용학습 2.회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다음에 제시된 인물들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말해보자.”, “목표학습 3.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작품 속에 비춰진 사회의 모습과 관련지어 답해 보자.” 와 같은 형식이다.

7) 친교나 정서표현 글쓰기 활동에는 ‘감상 쓰기’나 ‘편지쓰기’, ‘모방 사소설 짓기’유형이 있다.

단원 <흰 종이 수업>의 ‘결말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길이의 입장에서 편지를 써보자’와 같은 친교의 글쓰기인 ‘편지글 쓰기’ 유형이다. 여러 상황을 상정한 편지글쓰기는 교육과정상에서도 권장하는 바이지만 이 활동들은 ‘쓰기’보다는 주인공의 심정을 헤아려보아 소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게다가 편지를 쓸 상황을 하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는 쓰기 결과가 한정적이다. 이 밖에도 ‘후일담 쓰기’ 종류의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도 완성된 한편의 글쓰기를 통한 쓰기 교육 효과보다는 이야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유도하는 목적이 더 크다. 통합 언어적 관점에서 쓰기 교육을 적용해 완성된 형태의 글쓰기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편성하면 문학 제재를 활용한 통합언어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텍스트는 문학에 속하여 설명하는 글쓰기와 연관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설 텍스트는 생활과 가까운 언어사용, 완성된 미적 구조, 삶의 진정성 내포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국어 교육의 재료이다. 그래서 소설의 사건이나 인물의 특징, 갈등 구조 등을 문제 상황으로 설정하여 논술문 쓰기에 활용하거나 소설 읽기 후의 감상을 독후감쓰기 등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소설과 글쓰기 통합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소설의 사건 구조는 기사문과 같은 설명하는 글쓰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요건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다. 소설 읽기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내용들을 글쓰기의 재료로 이용하여 읽기·쓰기 새로운 통합의 방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소설에 대한 이해와 플롯 파악, 갈등 이해, 사건에 대한 주목 등 소설 이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기사문을 작성하여 기사문 작성 기회와 소설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소설 읽기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소개문을 써 본다면 소설 내용 이해 학습

을 그대로 쓰기 교육에 연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언어교육 활동의 하나로 읽기 자료 중 문학적 글인 소설 텍스트를 재료로 삼아 설명적 쓰기 활동을 제안할 것이다.

읽기를 통한 문학텍스트 이해와 쓰기활동을 영역 통합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쓰기 활동 방안으로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쓰기의 '실제'로 제시한 '정보전달하는 글쓰기' 중에서 '소개문 쓰기'와 '기사문 쓰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설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 교육 활동 방안을 제안하여 쓰기 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소설과 쓰기를 연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를 쓰기 교육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차례로 살펴보겠다.

80년대 통합교육 과정이 우리나라에 소개⁸⁾ 된 후 읽기·쓰기 통합적 지도에 관한 논의는 90년대 초에 신헌재와 이재승⁹⁾의 연구를 필두로 기초 이론 연구와 실천적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읽기와 쓰기의 통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등교육에서 CRIC¹⁰⁾ 프로그램과 같은 협동학습을 이용한 통

8) 한국 교육 개발원,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83.

9) 신헌재 이재승,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박이정, 1994.

10) Cooperative Integrated Reading and Composition(읽기와 쓰기 통합모형) 어린이들의 읽기와 쓰기교육을 위해 요로 전략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학습하도록 만들어진 국

합교육 모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주영¹¹⁾은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분석과 종합이라는 공통된 지도 요소를 찾아 이 관련 요소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를 신장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읽기와 쓰기가 유사한 인지과정이며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통합지도 방법을 소설과 희곡의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전 읽기를 위한 쓰기 활동/읽기 활동/사후 읽기를 위한 쓰기 활동으로 나누어 읽기 제재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 활동을 구안했다. 읽기와 쓰기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고 통합지도 방법을 소설과 희곡을 통해 찾아 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쓰기 활동으로 제시한 항목이 단답형이나 짧은 문장으로 답변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라서 쓰기를 위한 활동이라고 보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윤정옥¹²⁾은 언어 사용 능력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고, 사고력은 언어 사용 과정에서 강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도 자료로 설명적 글을 학습한 후 설명적 글의 4가지 구조(열거, 문제/해결, 인과,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같은 구조로 표현하기에 적당한 글쓰기를 하는 학습 방법의 효과를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했다. 그 결과 통합지도 집단과 읽기 지도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이 모두 향상되어 연구의 효과를 입증하기엔 실험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박병선¹³⁾은 토의 학습자간 상호 작용을 통한 듣기·말하기와 쓰기의 통합지도와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를 위해 쓰기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어과의 대표적인 협동학습모형이다.

11) 박주영,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2.

12) 윤정옥, 「읽기와 쓰기의 통합에 의한 설명적 글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7.

13) 박병선,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 지도 방법론 모색」,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쓰기 전략의 향상을 모색하였다. 쓰기 능력향상을 위해 토의를 통한 총체적 언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문학 작품을 수용한 결과를 쓰기 행위로 표현하는 경험과 학습자들이 완성한 쓰기 텍스트를 학습자끼리 교환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체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토론이나 토의 활동을 통합언어 교육의 방안으로 설정하여 쓰기와 말하기, 듣기까지 함께 묶어 고려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시한 통합지도의 방법이 실제 적용이 아닌 이론과 절차 소개에 그치고 있다.

서정아¹⁴⁾는 듣기·말하기와 쓰기를 통합지도 하는 방안으로 소집단 쓰기 활동을 활용하였고 읽기와 쓰기를 통합 지도하는 방안으로 독후감을 활용하였다. 방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교과서를 활용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실체는 교과서의 학습활동에서 통합교육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을 찾아 그를 보완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취했다. 통합교육의 단계별 지도 방법을 설정하고 영역 통합적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지도안을 예를 들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을 통한 효과 검증에 이르지 못하여 지도의 실효성을 알 수 없다.

이지윤¹⁵⁾은 통합적 언어 교육과 쓰기 능력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실제 논술 지도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교육적 활용가능성을 모색했다. 통합적 언어활동을 활용한 논술지도 모형이 종합적인 사고를 함양하고자하는 논술 지도의 목적과 운영에 적절함을 학습자들의 반응을 통해 검증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논술문을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쓰기 전 단계에서 경험한 영역통합적 활동들이 보다 풍부한 의미를 구성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이

14) 서정아, 「영역 통합적 쓰기 지도 방안」, 부경대학교 석사논문, 2004.

15) 이지윤, 「통합적 언어활동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7.

연구에 참고가 되었다. 그러나 논술문지도는 교육과정상의 쓰기 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지도에 관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시사점은 통합언어교육이 국어교육의 분리된 영역들인 쓰기와 읽기 기능을 신장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영역통합적 상황에서 이해와 표현¹⁶⁾의 전략과 기능을 연계하여 익히는 것이 학습자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국어교육의 목표에 부합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영역통합적 교육의 효과를 밝히면서도 실제 교육과정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이론적 당위성 주장에 머무르는 선에서 그치고 있어서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 언어교육 방법을 실제 교육과정에 맞추어 적용한 쓰기 활동을 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제시해 보겠다.

소설과 쓰기를 연계한 기초 이론 연구나 실천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논술교육이나 소설 교육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연구영역이 달라 출발점에서부터 쓰기 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이 논문에 시사점을 준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윤미옥¹⁷⁾은 소설 텍스트와 소집단 토의 활동을 활용한 논술 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전통적인 결과 위주 논술 지도에 비해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지도가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중위와 하위 수준의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있고 학생들

16) 국어교육의 체제에서 언어사용 기능은 이해와 표현으로 나뉘는데 이해에는 듣기와 읽기, 표현에는 말하기와 쓰기가 해당된다.

17) 윤미옥,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4.

의 논술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도 확인하였다. 독서와 작문의 통합을 논술문 쓰기를 통해 논의하였고 실제 논술 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와 수치로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여 논술 지도의 전문성 제고를 꾀하였다. 하지만 ‘논술문’쓰기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출발점이 현 교육과정하의 수업에 폭 넓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후석¹⁸⁾은 이청준의 ‘눈길’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소설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설 지도를 위해 협동학습과 통합적 언어 교육을 시도하여 구체적 텍스트를 예로 들어서 교수·학습 모형을 실제로 실시하였다. 실험연구를 통해 소설에 대한 흥미나 태도 같은 정의적 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소설을 읽은 후 다양한 쓰기(창작) 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쓰기(창작)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영역 통합적 교육 논의에서 소설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읽기, 쓰기와 문학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한 것에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쓰기의 방법이 ‘창작’이고 큰 틀이 소설 지도 방안이라는 문학교육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

윤금숙¹⁹⁾은 논술 지도에서 학습자는 배경 지식의 활성화나 아이디어 조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술의 기초 과정에서 주어진 학습과제에 대해 충분한 자료제시와 유의미한 상황의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 사고의 확장을 위해 학습자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것을 소설 학습을 통해 도모하였다. 지도 모형과 수업의 절차를 실제 학습 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정의적, 인지적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논술문 쓰기는 교육과정상의 쓰기 교육과는 다른 영역으로 국어 교육 안으로 수용되기에는 아직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

18) 이후석, 앞의 논문, 2005.

19) 윤금숙, 「논술 지도를 위한 소설 수업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논문, 2007.

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과 쓰기를 연계한 연구들은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여 쓰기 활동을 하는 것이 통합적 언어교육의 실천이자 의미구성 활동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쓰기 교육보다는 논술문과 소설 지도에 주목하고 있어서 “학교 교육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²⁰⁾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쓰기 교육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쓰기 지도 방안을 현 교육과정에 제시된 소설과 교과서의 학습활동 형태에 적용한 활동방안을 창안해보고자 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소설 텍스트를 학습한 후 수행할 수 있는 쓰기 활동을 제안하려고 한다. 쓰기 활동 항목은 중학교 교육과정상 쓰기의 ‘실제’에 제시된 ‘정보전달하는 글쓰기’에 맞추어 설정하였다. 교육과정과 연계를 위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쓰기 활동은 교과서 체계상의 학습활동의 형식이 된다. 읽기, 쓰기를 아우르는 통합언어 교육을 실행하고 소설 텍스트는 쓰기의 ‘내용생성’ 단계에 활용한다. 소설 텍스트 읽기와 설명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소개문 쓰기’와 ‘기사문 쓰기’ 유형의 글쓰기 통합 지도 활동을 제안한다.

이 활동은 다른 소설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예를 제시하기 위해 9학년 과정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을 대상 소설로

20) 박영목, 「작문교육의 발전 방향」 『국어교육론』, 한국문화사, 2005. 에서 추진해야 할 작문 연구의 과제로 ‘작문의 특성과 원리에 대한 연구’, ‘작문지도의 원리와 방법 및 작문 평가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연구’, ‘학교 교육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를 꼽았다.

설정하여 예시문항을 작성하고 활동 단계와 지도상의 유의점, 평가표, 교수 학습지도안까지 함께 제시할 것이다.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그 범위를 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읽기를 통해 소설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를 쓰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 방법 제안이라는 초기의 목표를 염두에 둘 때 문학 이해와 감상의 측면이 부각되면 소설 교육에 초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주지한다. 소설 텍스트는 읽기교육의 대상 텍스트이자 쓰기 활동을 위한 제재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상 중학교 국어교과서에서는 문학 단원에 소설 텍스트가 포함되어있으므로 문학 읽기, 이해 지도를 실시할 때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II장에서는 제안할 활동의 근간이 되는 이론들을 살펴 볼 것이다. 먼저 통합교육의 개념과 읽기와 쓰기 교육의 통합원리를 정리한다. 그리고 소설 텍스트의 특성에서 쓰기교육의 읽기 자료로 적합한 요소를 찾아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으로 삼는다.

III장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쓰기활동’방법을 제시 할 것이다. 소설 텍스트를 바탕으로 구성한 ‘소개문 쓰기’와 ‘기사문 쓰기’활동의 단계를 설정한다.

IV장에서는 앞의 쓰기 활동방안을 구체적인 소설 텍스트에 적용하여 상세한 안내와 수업지도안까지 제시할 것이다.

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더 나은 교육 방법 모색과 실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통합 언어 교육과 국어교육

통합 언어(Whole language) 교육은 실제 언어 생활에서 쓰이는 언어가 분리되어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학습을 통합하여 함께 학습하는 것과 언어 학습과 상황 맥락과의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관을 말한다. ‘통합언어’라는 용어는 ‘통합언어 교육’, ‘통합언어 운동’이라는 용어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 통합언어 교육에서는 국어과 내의 언어 영역의 통합만이 아니라 교과 간의 통합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을 통합하여 지도하려는 것은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을 존중하고, 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²¹⁾

총체적 언어 교육²²⁾이라는 용어도 함께 쓰이며 이는 80년대 중반에 학습자 중심의 언어 교육운동이 시초이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영역 별로 구분되는 언어 기능 교육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언어활동은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으며 언어 기능 또한 분리하여 가르칠 수 없다. 말하고 듣는 활동은 ‘말’이라는 공통적인 매개체로 언어 상황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읽고 쓰는 활동 또한 ‘글’이라는 공통적인 매개체를 가지며 필자와 독자는 유사한 사고과정을 거친다. 이에 주목하여 실생활에서 각 언어 영역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 교환적으로 교수 학습해야 한다

21) 윤정옥, 앞의 논문, 9면.

22) 총체적 언어교육에 대한 설명은 이재승, 「총체적 언어교육에서 총체성의 의미」, 청람어문학 17, 1997.

이재승, 「총체적 언어 교육의 의의와 과제」, 청람어문학 16, 1996.

이성은, 『총체적 언어 교육』, 창지사, 1994.을 참조.

는 통합 언어교육 이론이 등장하였다.

통합 언어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통합 언어에 대한 일치된 견해들을 찾을 수가 있다.²³⁾

첫째, 통합 언어에서는 언어의 각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들이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언어를 사용하는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통합, 사용된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즉, 학습자의 언어 사용은 다른 영역과 비교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이 이루어지려면 언어의 각 영역은 다른 영역에 기여하고, 또 한 다른 영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언어의 각 영역이 통합되어 사용되는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이란, 통합적인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 이 통합적인 상황이란, ‘수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 뿐만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싼 세계, 즉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실 밖 실제 활동 등과의 유기적인 관련이 이루어지는 여건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언어활동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그럴 때에야 언어 학습이 자연스럽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통합 언어에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흥미를 보이고, 현재 학습하고 있는 것과 과거에 학습한 것을 연결시키면서 학습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지하게 탐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즉 학습 내용보다는 학습자에 초점을 두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견해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내용의 중요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교사를 본다면, 통합 언어를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언어에 기초하는 학습을 계획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경험

23) 한철우 외, 『과정중심 독서 지도』, 교학사, 2001, 143~143면.

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와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의미 있는 학습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통합적 언어 교육의 바탕이 되는 통합적 언어 철학의 핵심적인 신념은 학습은 '상황'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통합적 언어 교수법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융합하고, 통합하는데 필요한 힘을 부여한다. 통합적 언어 수업에서는 학생 중심적이며, 교사와 학생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학습한다. 24) 전통적인 사고와 통합적 언어 사고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다.

전통적인 사고	통합적 언어 사고
학습은 교과서와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학습은 의미를 창출하며, 사고하고, 보급하는 구성주의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개념적인 지식을 강조한다.
언어는 미리 계획한 연습을 사용하여 학습한 독립적인 기술 체계이다.	언어는 학습의 도구이다. 그리고 언어는 프로젝트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시스템으로써 학습되고 강화된다.
학습자는 사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의 기술을 연습하고 수렴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이다.	학습자는 활동적으로 공부하며, 이해한 것을 조직하고, 발산적인 사고를 통해 통합하는 존재이다.
읽기와 쓰기는 정확한 표현 형식과 작문 기법을 익히게 한다.	읽기와 쓰기는 의미와 자기표현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표1>전통적인 사고와 통합적 언어 사고의 비교

통합적 언어 사고에서 구성주의적인 과정과 개념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것, 활동을 통해 언어 학습을 하는 것, 읽기와 쓰기는 의미와 자기표현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은 전통적인 사고에 비해 현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학습자 중심 국어교육'에 훨씬 근접해 있는 개념이다.

24) 김재복, 『통합교육과정』, 교육과학사, 2007, 표 229면.

앞의 논의들을 기초로 하여 통합언어 교육이 국어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영역들은 통합적으로 지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언어의 각 영역들은 일상의 삶, 즉 사회적 상황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근본적으로 구분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의 각 영역을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지도할 때 학습 효과가 상승한다는 실험 연구들도 많이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언어 교육은 국어과 교육에 한정될 수만은 없는 것이고, 각 교과목의 학습을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교과에서도 언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통합 교육 과정을 주장하는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은 통합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계속된 논의로 합일점을 도출하여 통합의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어과 학습은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언어와 실제 삶 속에서의 언어는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고, 또 실생활을 토대로 하여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언어 사용 능력은 증진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 필요, 능력에 맞는 학습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작용해야 한다.

넷째, 국어 교육의 초점은 언어 자체가 아니라 의미에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언어 학습은 다른 사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미를 나타내며 서로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 교육은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

25) 신현재, 이재승,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그 원리와 방법』, 서광학술자료사, 1994,

이상의 통합 언어 교육이 국어 교육에 시사하는 점은 7차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 목표에 나타난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또한 그 발생과 바탕이 학습자의 창의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 중심, 상황맥락 중심의 교육의 흐름에도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 언어 교육의 관점을 바탕으로 문학-읽기, 읽기-쓰기를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 문학과 읽기·쓰기 통합교육

현재 교육과정은 읽기와 문학 영역을 나누고 있다. 국어의 영역을 구분할 때 읽기는 언어 기능영역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와 함께 묶고 이와는 별도로 문학 영역을 상정하고 있다. 이렇게 문학과 읽기의 영역이 구분되면서 문학 교재는 읽기의 재료로 사용되거나 문학 읽기와 비문학 읽기를 별개로 지도해왔다.

이런 문제에 대한 문학교육 연구자들의 시각은 세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²⁶⁾ 문학교재가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보조 자료의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이는 국어과 교육에서 언어 기능 신장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에 선 것이다. 이때의 ‘국어과’에서 문학의 지위는 언어 기능 신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둘째는, 문학을 국어과 교육의 6개 영역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되, 문학

26) 권혁준, 「문학교재 읽기와 쓰기의 통합가능성」,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교재 읽기는 언어 사용 능력인 읽기와 구별되기 보다는 상호 의존적이며, 더 나아가 언어 사용 능력은 총체적인 상황에서 구현되므로 분리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셋째는, 문학 교과와 독자성과 교육성을 강조하며, 문학을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문학 교재는 문학의 본질과 교육성에 터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학생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째 입장은 주로 초등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할 때 강조된 것이며, 셋째 입장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창권²⁷⁾은 통합 언어 교육의 입장에서 문학교육 양상과 언어 사용 능력 신장으로서 읽기교육 양상을 결합시키려하였다. 흥미로운 문학 교재를 통하여 적절한 문학 교육을 이행함으로써 문학성을 다치지 않고, 더불어 이해라고 하는 언어 사용기능을 습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앞의 둘째 입장을 이론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문학 작품은 언어를 가장 예술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구체화한 담화 형태라는 점에서 어떤 글보다도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좋은 모델이며, 훌륭한 자료가 된다. 문학 교재는 심미적인 문학성을 갖추고 있는 예술 작품이기도 하지만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통합 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언어 기능은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 없고 이는 실제적인 사용을 통해 증진된다. 또한 언어기능은 지식이 아니라 고도의 기능의 집합이기 때문에 언어 학습은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총체 언어 운동은 언어 기능의 모든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문학 읽기와 쓰

27) 염창권, 「문학교재 읽기의 통합적인 지도방안」, 한국 언어학회 35, 1995.

기의 통합은 범교과적인 통합 보다는 교과내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²⁸⁾

작문지도의 목표가 미숙한 필자를 숙련된 필자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쓰기 지도했을 때의 효과는 숙련된 필자의 특성이 신장 되는지 여부를 통해 알 수 있다.²⁹⁾ 연구자들은 숙련된 필자가 가지고 있는 작문 능력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지식 혹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 ① 문자 언어 표현의 유창성
- ② 아이디어 생성의 유창성
- ③ 작문의 일반적인 규칙 및 관습에 대한 통달
- ④ 독자, 상황 및 대상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인지 능력
- ⑤ 글에 대한 판단력 및 감상력
- ⑥ 통합적 사고력 및 통찰력

문학 읽기와 쓰기의 통합 효과의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문자언어 표현의 유창성은 문학 작품이 언어를 가장 세련되게 다룬 예술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어법이나 문체에 대한 모범이 될 수 있고 문학 교재를 통해서 그것을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의 숙달에는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능숙한 필자는 숙련된 독서가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는 추론의 결과 일뿐 기능의 신장을 도모하는 어렵다.

이에 비해 아이디어 생성의 유창성은 초보적인 필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인 ‘내용생성 단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무엇을 쓸 것인가, 즉 아이디어 생성단계에서 문학교재는 학생들의 경험과 배경지식

28) 통합 교육의 양상을 구분 할 때, 교과 영역을 넘어선 범교과적 통합을 ‘교과적 접근법’, 쓰기와 다른 언어 기능 영역을 통합하는 것은 ‘교과내적 접근법’으로 나눈다.

29) 권혁준, 앞의 글, 297면~303면.

을 확대시킨다. 또 문학교재는 쓰기에 필요한 배경지식으로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창작 동기나 아이디어 발견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작문의 일반적인 규칙 및 관습에 대한 통달은 수필, 시, 소설 등 실제의 작품을 많이 읽어야 습득이 되는 것이다. 관습에 익숙해지고 규칙을 발견하여 실제로 창작하는데 적용해 보는 것은 문학 창작 교육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 상황 및 대상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인지능력은 자기중심적인 글쓰기를 하는 미숙한 필자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독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글을 쓰는 필자들은 구어체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독자의 어휘수준을 자신과 같다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단계의 필자가 성숙한 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자, 상황 및 대상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인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문학작품에 대한 학습을 통해 독자, 상황, 대상을 고려한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깨닫게 할 수 있다.

글에 대한 판단력 및 감상력은 쓰기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능이다. 읽기 과정에서 훈련된 비평 의식은 특히 사후쓰기과정에서 자신의 글을 점검하고 수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자기의 글을 점검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읽어야 하는데 이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를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쓰면서 계속 자신의 글을 읽고 점검한다. 이는 독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글에 대한 판단력과 감상력은 읽고 쓰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신장된다고 할 수 있다.

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은 쓰기 능력에 포함되는 고등사고 기능이다. 독서를 통해서 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이 신장될 수 있지만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야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단시간 학습에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다만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면서 주어진 주제에 관한

사고 활동을 자극하여 학생들의 안목과 식견을 넓혀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쓰기와 읽기, 특히 문학 읽기와 쓰기의 통합 가능성을 능숙한 필자의 특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읽기와 쓰기에 대한 연구들은 두 영역의 과정은 분석적이고도 종합적인 사고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읽기능력과 쓰기 능력 사이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영역을 함께 지도하면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읽기에 쓰기 과정을 포함하는 것은 문학교육의 정의적 태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소설에서는 정밀한 읽기를 유도하여 작품이 해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감상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다. 문학 작품을 지도 할 때 읽기와 아울러 쓰기를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글에 대한 감상력과 비판적 안목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 이론

언어 사용의 모든 기능들은 내적으로 관련되어 상호 보완적이다. 이러한 영역의 학습은 다른 것을 돕는다. 쓰기 활동은 특히 읽기 지도과정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그들이 읽은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다. 글을 써봄으로써 필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³⁰⁾

30)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1, 187면.

읽기와 쓰기는 글, 즉 문자 언어를 매개로 하고 그 사고과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³¹⁾ 표면적으로 읽기는 수용하는 활동으로, 이미 주어진 텍스트를 해석하는 행위이다. 이에 비해 쓰기는 표현하는 활동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읽기와 쓰기의 과정은 유사하다는 관점이 부각되고 있다. 읽기와 쓰기 간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특히 지식의 공유, 언어 처리 과정의 유사점, 사고 작용의 개입 등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언어 기능 간의 통합적 지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읽기와 쓰기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지도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Eckhoff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쓴 글을 분석해보면, 아동들이 읽었던 글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한 부류의 아동들에게는 단순한 구조의 문장으로 구성된 문학 작품을 읽게 하고, 한 부류의 아동들에게는 복잡한 문장을 지닌 글을 읽게 했다. 그런 다음 글을 쓰게 했더니 자신들이 읽었던 문장 구조를 반영했다.

Jaggar et al.은 아동들과 면담을 했는데, 이들 아동들은 자기가 글을 쓰는 내용과 방법은 읽기를 통해 배웠던 것을 많이 활용한다고 대답했다. Brurris는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게 했더니, 그들은 자신들이 읽었거나 들었던 이야기의 등장인물, 주제, 플롯 등을 조합하는 것을 발견했다. Dionisio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읽기는 새로운 쓰기 주제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Moffett&Wagner는 언어 교육에서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와 조각화(fragmentation)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서 구획화는 언어 기능

31) 아래의 외국 논문은 이재승,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교육과학사, 2006. 250-252면에서 발췌하였다.

들(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화는 실제적인 텍스트, 의미 있는 상황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기능이나 전략들을 나누어서 이들 각각에 치중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글씨쓰기나 철자 지도를 별도로 구별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쓰기 지도에서 맞춤법이나 시지 일치, 주술 일치 등을 가르칠 때 탈맥락적인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연습하게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nderson 등에서도 읽기 활동이 쓰기 능력 발달을 촉진하고, 쓰기 활동이 읽기 능력 발달을 촉진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쓰기 활동이라고 해서 모든 활동이 읽기 활동을 촉진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단순 기능들(철자, 맞춤법)등은 읽기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차적인 사고를 요하는 활동으로 갈수록 공통점이 많이 생기게 된다. 즉, 읽기와 쓰기의 고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보다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가르칠 때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듣기와 읽기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듣기와 읽기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듣기와 읽기 간의 관련성을 인지적인 수준이 높은 활동을 할수록 공통점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연구 중에는 읽기와 쓰기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주류를 차지했다. Stotsky는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읽기와 쓰기 간의 상관 연구는 능숙한 필자가 좀 더 나은 독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능숙한 독자는 미숙한 독자에 비해 좀 더 글을 조직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 바 있다.

스키마 이론은 읽기와 쓰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독해를 할 때 사용된 같은 스키마가 쓰기 과정에서도 이용된다.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 필자는 그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에 접근해

야 한다. 이들 스키마는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밑천이 된다. 스키마가 없이는 글을 쓸 수 없다. 읽기는 쓰기를 하는데 유용한 스키마를 제공해 준다. 읽기는 쓰기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적인 스키마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스키마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잘 짜여진 글을 읽으면, 글을 쓸 때 내용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초기아동들의 문식성 발달에 관한 연구들이다. 즉, 초기 아동들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학습에 대한 관찰이 읽기와 쓰기를 통합 지도 해야 하는 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초기 아동들이 가정에서 문자를 배우는 과정은 그야말로 통합적이다. 부모들은 아동들에게 글을 읽어 주고, 이와 관련된 글자 놀이를 한다. 딱히 이것은 읽기다 저것은 쓰기다 할 것 없이 이들은 함께 다루어진다. 아동들은 이러한 비형식적인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읽기와 쓰기를 배우게 된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마련해 줄 때,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이 좀 더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길러지게 된다.

독자와 필자가 읽기와 쓰기를 하는 동안 비슷한 의미 구성을 한다는 과정 관련성에서도 읽기와 쓰기의 통합원리를 찾을 수 있다. 32)

Charles는 읽기와 쓰기의 과정을 사전 읽기(사전쓰기), 계획하기, 읽기(쓰기), 조정하기로 나누어 그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전 쓰기 활동에서는 브레인스토밍하기, 정보 수집하기, 깊이 생각하기, 토의하기 등의 학습을 한다. 이들 활동은 사전 읽기 활동인 토의하기, 머리말이나 제목 등의 단서로부터 정보 수집하기, 사전 지식 활성화하기 등과 대응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하기 활동에서 필자는 글의 틀을 형성한다. 글을 쓰는 목적, 청중을 고려하여 자료를 조직하고 언어를 선택하며 글의 표현 방식에

32) 한철우 외, 앞의 책, 「읽기와 쓰기」.151~152면.

도 관심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독자는 글의 목적, 필자의 의도, 언어 표현 방식, 글의 구저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읽고 쓰는 활동과 다시 읽고 다시 쓰는 활동에서도 유사한 대응이 계속된다.

독자는 필자가 전달하려는 의미 내용인 글과 자신의 사전 지식을 통합시키면서 이해를 하고, 필자는 독자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단서와 전략 등을 사용하면서 표현을 하게 된다. 조정하기 활동이 어느 한 활동의 지점에 묶여 있지 않고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할 때만 다 작용하게 되는 것은 읽기와 쓰기에서 공통적인 사항이다.

Squire는 읽기와 쓰기의 단계를 읽기/쓰기 전 단계, 읽기/쓰기 단계, 읽기/쓰기 후 단계로 설정하여 그 관련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이 표에서는 쓰기를 하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관련 짓고, 이를 표현하고, 평가하듯이, 독해도 학습자가 글의 의미와 구조를 재구성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고 과정에 임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읽기	쓰기
사전	이해를 위한 준비 사전 경험과 관련 짓기 목적 설정하기 작가의 입장 살피기	아이디어 탐색 아이디어 조직 관점 결정 독자 고려하기
도중	독해 지적이며 정의적인 활동	작문 지적이며 정의적인 활동
사후	평가하기 전체와 부분 관련짓기 효과가 성취된 방법 분석하기 독자적인 판단하기	평가하기 교정과 편집 외적기준으로 글의 정확성 판단하기

<표2>James R. Squire의 읽기와 쓰기의 관련요소³³⁾

33) 박주영, 앞의 논문, 1992. 에서 재인용.

읽기와 쓰기의 과정적 유사성은 각 단계별 관련 요소에서도 드러난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읽기와 쓰기는 사전, 도중, 사후의 단계에서 비슷한 요소를 보이는 과정적 유사성을 지닌다. 때문에 독자와 작가는 독해와 작문에 앞서 유사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읽기와 쓰기의 이러한 단계별 관련 요소의 일치점에서 읽기와 쓰기 통합 교육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읽기와 쓰기 능력은 통합 언어교육을 통해 상호 증진될 수 있다. 과정적 유사성이 있는 읽기와 쓰기를 함께 교육할 경우 고등 사고기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읽기/쓰기 능력의 신장을 꾀하는 방향으로 언어 교육을 진행시키는 것이 된다.³⁴⁾

소설 읽기 지도에도 과정중심의 읽기 지도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독자반응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독자반응 이론은 읽기 과정을 독자의 사고와 텍스트간의 상호작용이며 의미는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성된다고 여기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읽기는 독자가 끊임없이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형성함에 따라 역동적인 과정이 된다. 소설 읽기에서 과정중심의 접근은 인물의 특징과 소설의 배경, 사건의 원인과 결과 예측 등에서 독자가 추론을 한다는 데에 주목하는 것이다.

소설 읽기 지도에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 방법을 적용하여 독서 과정에 따른 활동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⁵⁾

읽기 전 활동은 글의 화제나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 활동의 목표는 글을 읽기 전에 글의 화제나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읽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설정된다. 등장인물과 일체감을 형성하고 읽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 신념을

34) 윤정옥, 앞의 논문, 1997. 28면.

35) 한철우, 『문학 중심 독서 지도』, 대한 교과서, 2001. 100~172면.

재점검하게 하고, 책 속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확장하게 하고, 또한 문학 작품에 대한 심미적인 반응을 고양하게 한다. 읽기 전 활동은 읽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읽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읽는 중 활동은 학생들의 독해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텍스트의 생각, 사건, 인물에 반응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활동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언어 사용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작품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게 한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정 주제, 논점, 인물, 사건에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활동, 즉 학생과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읽기 후 활동은 읽은 내용 이외의 영역으로까지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 활동의 목표는 개인적인 반응을 촉진하고 책에 담긴 아이디어, 주제, 주요 쟁점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다. 이는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고 분석과 종합을 도모하며 읽은 내용 이외의 영역으로까지 이해를 확장하고 정보를 잘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으로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글쓰기 지도 방법 제시를 위해 소설 읽기와 쓰기 통합교육의 근거와 원리를 살펴보았다. 통합 언어 교육의 정의와 국어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문학 제재와 읽기, 쓰기 통합교육의 접점, 그리고 읽기와 쓰기 교육의 통합원리를 살펴보았다.

위의 이론들에서 읽기와 쓰기를 함께 교육할 때 읽기 능력과 쓰기능력을 함께 길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특히 읽기와 쓰기의 과정적 유사성에 근거한 Squire의 쓰기와 읽기 단계별 관련 요소는 절차 설정방식이 소설 읽기 지

도의 전·중·후 단계별 읽기 방법과 유사하여 소설 읽기와 쓰기 통합 모형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quire의 읽기와 쓰기 관련 요소를 근거로 삼아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 방안을 마련한다. Squire의 틀을 모델로 삼아서 소설 읽기 지도의 과정 중심 활동전략을 읽기 전·중·후 활동에 적용하여 소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를 설정할 것이다. 소설 읽기과정을 쓰기 활동으로 연결하여 통합 지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Ⅲ. 소설 텍스트와 글쓰기 통합지도 방법

여기서는 앞의 문학-읽기 통합, 읽기-쓰기 통합의 근거를 바탕으로 문학 중에서 소설 텍스트와 설명하는 글쓰기를 결합한 통합지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설 텍스트는 삶의 모습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구조이다. 설명하는 글쓰기는 7차 교육과정에서 쓰기교육의 실제로 제시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친교의 글쓰기’ 중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에 해당한다. 설명하는 글 또는 설명적 글에 대한 정의와 소설과 설명하는 글쓰기의 관련성을 살펴 본 후 설명하는 글쓰기 중에서도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개문과 기사문의 특성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살펴 볼 것이다.

1. 설명적인 글쓰기의 개념과 관련 학습 요소

가. 설명적인 글의 정의

글 쓰는 목적이 글 쓰는 이를 강조하면 개인적이며 표현적인 쓰기가 되고, 대상을 강조하면 설명적인 글의 특성을 지니게 되어 정보 알리기와 같은 글이 된다. 그리고 청중에 대한 호소를 강조하면 논설문의 특성을 지니게 되어 문제해결이나 평가하기 같은 글이 된다. 그리고 미학적 형상화를 목적으로 글 그 자체를 강조하면 문학적인 글이 된다. 그러므로 글의 유형은 크게 표현적인 글, 문학적인 글, 설명적인 글, 설득적인 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⁶⁾

Brewer³⁷⁾는 문어적인 글의 기본을 구성하는 인지 구조와 글이 지닌 효력에 근거하여 글 유형을 분류하였다. 첫째로 인지구조에 따라 글의 기본적인 유형을 기술적 글, 서사적 글, 설명적 글로 구별하였다. 기술적 글은 고정된 장면을 시각적-공간적(visual-spatial)인 인지 표상을 거쳐 언어적 형태로 나타내려는 유형을 말한다. 또 서사적 글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인과적인 응집성을 띠도록 언어적 형태로 표상하는 글 유형을 말하며, 설명적 글은 추상적인 논리 과정을 귀납, 분류, 비교 등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 언어적 형태로 나타내는 글을 말한다. 둘째로 글의 효력(force)을 기준으로 하여 글을 생산하는 필자의 의도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정보 전달을 위한 것, 설득을 위한 것,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 문학적 심미적 목적을 위한 것이 그 네 가지이다.

이상은 구조와 효력에 따라 글의 종류를 나누었을 때의 설명적인 글의 특징이다. 필자의 의도에 따라 나눌 때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 설명적인 글에 해당한다. 설명문에 대한 작문 일반 이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설명문은 어떤 사실이나 지식, 정보, 대상을 쉽게 풀어서 쓴 글이다. 즉, 독자가 잘 모르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대상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글이다. 이러한 설명문의 대표적인 것으로 사전의 풀이나 궁금한 사실을 알려주는 신문기사의 글을 들 수 있다.

설명문의 기본적인 요건은 정보성, 신빙성, 완결성을 들 수 있다. 정보성을 대부분의 독자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빙성은 제시되는 자료의 출처가 분명해야 하면 권위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완결성은 알리고자 하는 내용

36) 이정민, 「중학생 작문의 수준별 양상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37) 윤정옥, 앞의 논문, 1997. 에서 재인용.

에 대한 의문이나 부정적인 사례에 대한 해명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명적인 글을 쓸 때의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해하기에 편리한 구성, 주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 객관적인 내용, 쉽고 간결한 문장, 모호하거나 어려운 표현 배제, 그리고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³⁸⁾

7차 교육과정의 국어과의 교육 내용 체계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공통으로 ‘실제’를 위해 글(말)의 성격에 따라 정보전달을 위한 글(말), 설득을 위한 글(말), 정서 표현을 위한 글(말), 친교의 글(말)로 나누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의 본질 -필요성 -목적 -개념 -방법 -상황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의 원리 -글씨 쓰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고쳐쓰기 -컴퓨터로 글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의 태도 -동기 -흥미 -습과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의 실제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정서표현의 글쓰기 -친교의 글쓰기 		

<표3> 7차 교육과정의 쓰기 내용 체계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의 내용은 “다양한 작문 과제에 대하여 설명문, 보고문, 기사문, 전기문, 안내문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쓴다.”고 명시하였다. 정보전달하는 글의 특성으로는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다,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

38) 박덕유, 『작문교육의 이론과 실제』, 「작문의 실제」, 한국문화사, 1998.

를 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설명적인 글의 범위를 교육과정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한정하고 그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해당하는 소개문³⁹⁾와 기사문 쓰기 활동을 구현할 것이다.

나. 소개문과 기사문 지도관련 학습요소

‘소개문’ 관련 학습 요소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생활국어 1단원 ‘생활과 글쓰기’에서 제시된다. 소개문은 일기쓰기, 전자우편 쓰기와 함께 생활 속의 글쓰기 활동으로 다루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특별히 글 형식의 제약 없이 처음-중간-끝의 구성으로 영화를 보고 난 후 영화에 대한 소개문을 쓰는 활동을 설정하고 있다. 이 단원은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쓰기 상황을 설정하여 글쓰기가 어렵지 않으며 메모하는 습관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글쓰기의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목표이다.

소개문은 생활 속의 글쓰기 활동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서사적인 글과 설명적인 글로 나누었을 때 설명적인 글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과정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에 포함될 수 있으나 설명문 같은 정연한 글보다 형식이 까다롭지 않고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점을 들어 지도하기를 권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소개문 쓰기 방법에 따라서 소설 텍스트와 연계한 소개문 쓰기 활동을 구성해 볼 것이다.

기사문 관련 학습요소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생활국어 6단원 ‘여러 가지 글’에 제시된다. 이 단원은 대단원 학습 목표로 ‘형식에 맞추어 기사문과

39) ‘소개문’은 정의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보고문을 쓸 수 있다.'를 설정하여 학생들이 기사문의 형식을 익히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찾아서 기사문을 써보게 하는 활동까지 유도하고 있다.

기사문은 정보전달하는 글 중에서 학생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글임을 인식하게 하고 육하원칙 등 기사문의 형식을 이해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문을 완성하게 하여 기사문을 작성할 수 있는 단계별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역시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을 바탕으로 소설 텍스트와 연계한 기사문 쓰기 활동을 구성해 볼 것이다.

2. 소설 텍스트 읽기와 글쓰기 통합 지도 모형 탐색

본 연구는 쓰기교육의 측면에서 소설 텍스트 읽기를 활용하여 통합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즉 읽기와 쓰기 통합언어 교육의 기반 위에 읽기 교육의 대상 텍스트로 소설을 수용하는 관점을 취한다. 통합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소설 읽기와 글쓰기를 통합하는 것이므로 읽기, 소설 교육의 측면에서 접점을 찾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소설의 일반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통해 소설 교육의 단계에서 쓰기교육의 통합 근거와 통합 가능 단계를 살펴보겠다.

문학제재 수업의 일반적인 절차 모형은 '계획→진단→지도→평가→내면화' 단계를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소설의 교수-학습모형은 다음과 같다.

I. 계획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 목표의 설정 2. 교육 내용으로서의 텍스트 분석 3. 부수자료 선정(비평텍스트, 감상 텍스트, 텍스트 배경자료) 4. 평가 목표 설정
II. 진단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에 대한 사전 지식 진단 2. 텍스트와 관련된 선체험 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과 관련된 생체험 진단 (2) 양식과 관련되는 미적 체험 진단
III. 지도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텍스트에 대한 개괄적 접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품 읽기 (2) 인물·사건·배경의 파악 (3) 관련 경험의 재생과 경험의 교환 2.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접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텍스트의 창작배경 파악 (2) 플롯과 스토리의 관계 파악 (3) 텍스트의 갈등구조 파악 (4) 서술 방식과 주제와의 관련성 파악 (5) 소설의 제요소간의 관련성 파악 (6) 소설적 세계와 인물에 대한 심화된 이해 3. 텍스트의 종합적 재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 내·외적 세계의 상호 관계 파악 (2) 작가와 작중인물의 삶에 대한 자세 이해 (3) 허구적 세계의 간접체험
IV. 평가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평가 내용범주 정하기 2. 텍스트 본질과 관련하여 평가 방법범주 정하기 3. 평가결과 송환하기
V. 내면화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 2. 가치화의 지속 및 인식 확충 3. 간단한 소설작품 쓰기 및 텍스트에 대한 평문 쓰기

<표4> 구인환 외의 소설 수업 절차 모형⁴⁰⁾

40)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4, 311-313면.

구인환 외의 수업 절차모형은 문학 중심적이며, 문학의 교육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의 ‘Ⅲ. 지도 단계’는 개괄적 접근-분석적 접근-종합적 감상에 이르는 과정이 상정되어, 소설을 분석적 시각에서 다루어 작품의 형해(形骸)만을 건드리는 작품 이해의 미시성을 넘어서게 해준다. 따라서 지도 단계는 형식주의와 독자 반응 이론을 통합적용하여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Ⅴ. 내면화 단계’는 많은 작품을 감상하는 체험의 중요성을 지적인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 개인적 체험의 확대와 심화, 학습자의 창작 체험을 통한 소설에 대한 친밀감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소설 수업의 절차 모형을 살펴보면 넓은 의미에서 읽기와 쓰기의 활동을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기 위한 관점에서 교수-학습이 설계되었다기보다는 내면화나 반응의 심화를 위한 방법으로 쓰기를 활용하고 있다. 즉 읽기를 중심으로 하고 읽기에서 형성된 인지적 정의적 반응을 쓰기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⁴¹⁾

소설 수업 절차 모형이 표면상 쓰기를 내면화에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실제 지도 과정에서는 ‘Ⅲ. 지도단계’에서 소설 내용 파악을 위해 부분적 쓰기 활동을 수행한다. 인물, 사건, 배경, 갈등 구조, 텍스트의 종합적 재구성 단계에서는 내용 정리를 위해서 쓰기를 실행한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소설의 내용 파악 단계에서 소설 이해를 위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활동을 실시하여 소설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의 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위의 소설 수업 절차 모형을 일반적인 ‘읽기 전-중-후 단계모형’에 적용해 보면 읽기 전 단계에 ‘계획 단계, 진단 단계’가 읽기 중 단계에 ‘지

41) 이후석, 앞의 논문, 25~27면.

도 단계’가 읽기 후 단계에 ‘평가 단계와 내면화 단계’가 해당한다.

글쓰기의 일반적인 모형 역시 읽기와 같이 ‘쓰기 전-중-후 단계모형’으로 설정된다. 글쓰기의 과정은 크게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나누는 방식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앞의 방식은 쓰기 전(rewriting), 쓰기(writing), 쓰기 후(postwriting)로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고 뒤의 방식은 아이디어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교정하기로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결과중심, 과정중심, 사회적 대화 중심 등 쓰기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나올 수 있지만 수업에 적용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단계구분은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로 나눌 수 있다. 물론 Flower&Hayes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들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활동으로 조정하기(monitoring, or regulating)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⁴²⁾

계획하기	조정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내용) 표현하기	
(내용) 수정하기	

<표5> 글쓰기의 과정

이 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서 쓰기의 원리인 ‘글씨쓰기, 내용생성, 내용조직, 표현, 고쳐쓰기, 컴퓨터로 글쓰기’의 바탕이 된다. 위의 일반적인 글쓰기 단계를 소설 수업 절차에 적용하여 소설과 쓰기 교육을 통합한 지도 단계를 설정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설 수업에서 ‘Ⅲ. 지도 단계’의 텍스트에 대한 개괄적 접근을 학습 요소로 해서 그 단계의 결과물을 쓰기

42) 이재승, 앞의 책, 263~264면.

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도입할 것이다.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여 정보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소설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설 수업에서 인물, 사건, 배경, 갈등구조 파악은 소설 이해의 기본 단계이다. 이 기본 단계를 거치면서 동시에 정보전달하는 글을 작성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 할 수 있다. 소설 내용 파악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삼아서 쓰기단계에 활용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을 쓸 것인가를 가장 어려워하는 미숙한 필자들에게 공통된 스키마를 제공하는 쓰기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소설을 면밀히 읽고 소개할 내용과 기사문으로 작성할 내용을 찾는 활동을 통해 소설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작품 외적 내용(작가, 창작 배경, 시대적 상황)을 학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소설 읽기와 설명적 글쓰기를 통합한 쓰기 지도 단계를 제시해 보겠다.

3. 소설 텍스트 읽기와 글쓰기 통합지도 방법

소설 텍스트 읽기와 글쓰기의 통합 지도 방법은 통합 교육 이론과 소설 읽기와 쓰기의 통합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과정중심 소설 읽기와 읽기·쓰기 관련 요소에서 통합이론의 근거를 찾아보았다. 구인환의 소설 수업 절차 모형을 통해서는 일반적 소설 수업 절차에서 글의 내용 파악과 내면화 단계에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수업 절차의 내용 파악 단계에서 소설 이해를 위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활동을 실시하여 소설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의 통합의 근거로 삼는다. 그리고 소설 이해를 위한 읽기 수업의 내용 요소를 소설 읽기 전·중·후 과정별 활동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소설 읽기지도의 방법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 모든 통합 교육적 근거를 바탕으로 읽기의 전·중·후 절차에 따른 쓰기 활동을 설정하여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할 것이다.

활동의 목표는 읽기의 전·중·후 활동을 수행하며 쓰기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읽기 활동을 진행하며 그 결과물을 쓰기의 내용으로 삼아 글쓰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지도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설 텍스트 제재는 읽기 단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진행하는 절차에 쓰기 교육을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 읽기 지도 절차를 따르면서 쓰기 활동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한다.

소설 텍스트 이해의 측면에서 읽기 지도는 주로 인물, 사건, 사회적 배경 파악을 통한 주제 이해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소설 읽기 지도와 글쓰기를 통합 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구성해 보겠다.

읽기 전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조성하거나 활성화하고 글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글을 읽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 주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읽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활동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소설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 하고 관련 자료 사전 조사를 과제로 실시한다. 이 활동의 결과는 설명하는 글쓰기를 실시할 때 글의 내용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읽기 전 활동>

- 소설의 제목을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을 연상했는가?
- 제목과 보고 생각나는 경험이 있는가?
- 소설과 작가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미리 조사해 본다.

읽기 중 활동은 학생들에게 문학 경험을 하게하며 텍스트에 개인적으로 반응하도록 격려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정 주제, 논점, 인물, 사건에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관점도 들어보고 자신의 반응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활동으로는 텍스트에 대한 반응 항목을 설정하고 그 답을 메모하게 한다. 읽기 중 활동의 메모들은 읽기 후 활동으로 실시할 설명하는 글쓰기의 내용이 된다.

<읽기 중 활동>

- 소설을 읽으며 인물의 특성과 사건 전개 양상을 메모한다.
- 소설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메모한다.
- 소설의 배경의 특성을 메모한다.
- 구성에 따른 사건 재배열
- 사건의 주요인물은 누구인가?
-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사건은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읽기 후 활동은 읽기 중 활동을 바탕으로 등장인물, 중요 사상, 주제, 개념 등 글의 몇몇 측면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고, 아이디어를 분석 종합하여 글의 의미를 심화 확장시킨다. 또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시 읽어 보도록 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 활동은 소설의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고 스스로 재구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쓰기활동의 기회도 제공하여 의미 있는 읽기 후 활동이 될 수 있다.

<읽기 후 활동>

- 소설에서 인상 깊은 인물이 있는가? 소설에서 성격을 묘사한 부분을 찾고, 그 인물의 성격을 정리해보자.
- 소설의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써보자.
- 소설의 배경과 주제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 읽기 중 활동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쓰기 위한 개요를 짠다.
- 개요를 토대로 글을 작성한 후 수정한다.

읽기 후 활동의 깊고 넓은 이해와 학습한 내용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쓰기활동을 결합시켰다. 또한 읽기 전과 중 단계에서 쓰기를 병행하였으므로 읽기 전 단계에 걸쳐서 쓰기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기본 활동들을 바탕으로 정보전달하는 글쓰기 중에서 소개문 쓰기와 기사문 쓰기의 활동을 구성해 보겠다. 어떤 소설에든 적용할 수 있으며 글쓰기는 충분한 시간 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단원의 학습목표에 따라 소개문이나 기사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실시한다. 소개문은 소설의 배경, 인물, 사건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룰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소설 읽기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사문은 사건이나 인물에 주목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사건의 비중이 큰 소설이나 인물의 특성을 다루는 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가. 소개문 쓰기를 위한 활동

소개문 쓰기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있는 글이 아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생활국어의 1단원 ‘생활과 글쓰기’⁴³⁾에서 다루고 있다. 소개 문에는 영화의 내용과 감상을 메모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소개문을 쓰는 활동을 유도한다. 대단원의 학습 목표도 ‘영화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로 설정하고 있다. 소개문을 쓰는 단계는 생활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의 항목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활동1 (읽기 전 활동)

- 소설의 제목을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을 연상했는가?
- 제목에 보고 생각나는 경험이 있는가?
- 소설과 작가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조사해 본다.

활동2 (읽기 중 활동)

- 소설을 읽으며 인물의 특성과 사건 전개 양상을 메모한다.
- 소설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메모한다.
- 소설의 배경의 특성을 메모한다.

활동3 (읽기 후 활동)

- 소설에서 인상 깊은 인물이 있는가? 소설에서 성격을 묘사한 부분을 찾고, 그 인물의 성격을 정리해보자.
- 소설의 배경과 주제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 이 소설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 활동 2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문을 쓰기 위한 개요를 짠다.
- 개요를 토대로 소개문을 작성한 후 수정한다.

43) 교육인적 자원부, 『국어·생활국어 교사용 지도서』, 「생활국어 1. 생활과 글쓰기」, 2001. 참조.

소개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대략의 줄거리,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주제), 소설의 사회적 배경, 소설가나 관련 작품에 관한 정보, 소설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의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소개문에 필요한 내용은 바로 읽기 중 활동과 읽기 후 활동으로 실시한 활동에서 추출해 낼 수 있다. 때문에 활동 2와 3을 통해서 소설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쓰기의 내용 생성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쓰기 단계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활동을 학습지로 미리 제작하여 학생들이 글쓰기 단계를 조정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덜어준다. 활동 1의 내용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게 하여 배경지식의 활성화와 소설 이해를 돕고 과제 결과는 소개문 쓰기에 자료로 활용한다. 활동 2에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읽기 내용에 대한 점검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활동3의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며 소설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를 유도하고 그 사고결과를 소개문 쓰기의 내용 항목으로 활용한다. 이후 개요 짜기와 글 작성하기 활동을 실시하여 소개문을 완성하고 평가 한다.

나. 기사문 쓰기를 위한 활동

기사문은 형식이 분명한 글쓰기 과제로 학생들이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학습지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여 쓰기 단계를 수행하게 지도해야 한다. 아래 기사문의 작성단계에서 소설텍스트를 바탕으로 기사문을 작성하면 취재대상은 소설 속 사건이고 자료 수집 및 취재는 소설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소설 속 사건을 기사문으로 작성하면 그 사건이 소설 속에서 지니는 의미, 주제와의 연관성, 플롯에 대한 이해, 사건의 전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취재대상의 결정	
자료수집 및 취재	
기사문 작성 (육하원칙에 의함)	표제 : 기사 내용 전체의 제목 부제 : 표제를 보충 전문 : 기사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요약 본문 :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 해설 : 기사에 대한 참고 사항이나 설명

<표7>기사문의 작성 단계

활동 1 <읽기 전 활동>

- 소설의 제목을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을 연상했는가?
- 제목에 보고 생각나는 경험이 있는가?
- 소설과 작가, 시대적 배경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조사해 본다.

활동 2 (읽기 중 활동)

- 구성에 따른 사건 재배열
- 사건의 주요인물은 누구인가?
-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사건은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활동 3-1 (읽기 후 활동)

- 사건의 어떤 면을 주로 다룰 것인가?
-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정리해 보자.
- 누가 :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

활동 3-2 마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문을 완성해 보자.

-표제, 부제, 전문, 본문의 형식을 갖춘 기사문을 작성해 보자.

쓰기 단계의 진행 및 의의는 소개문 쓰기와 같다. 읽기 전 활동은 배경 지식 활성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글쓰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고 읽기 중 활동과 읽기 후 활동의 경우 소설 내용 파악에 필요한 항목들 중에서 글의 성격에 맞는 항목을 선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활동의 질문에 따라 답을 쓴 내용을 토대로 정보전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기사문은 예시를 시범보이기를 통해 제시하여 학생들이 막연함을 느끼지 않게 지도해야 한다. 기사문을 쓸 때 기본정보만 나열하지 않고 부각하고 싶은 사건의 측면을 설정하게 한다. 대단원의 성격에 맞추어 배경이나 인물의 특징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각자 선택한 측면을 자세히 서술하는 방식을 취해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IV. 소설 텍스트 읽기와 글쓰기 통합지도 활동 방안

이 장에서는 앞에서 마련한 소설 텍스트 읽기와 글쓰기 통합지도 활동을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시켜 구체적 활동 방안을 설정해 볼 것이다. 소설 텍스트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3단원에 제시된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어떤 소설에나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소설을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9학년이 기사문과 소개문의 특징과 실재를 배운 단계이고 이 소설의 절정단계가 외부적 갈등인 ‘싸움’이어서 기사문 작성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읽기 중 활동의 항목은 문학 단원의 대단원 목표에 따라 조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설정한 활동을 ‘원미동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실제 문항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예시 답안도 중학교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의 형식을 참조하여 제시해 보겠다.

1. 소개문 쓰기

소개문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의 글이다. 형식이 간단하고 글의 목표가 분명하여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글이다. 또한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소설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개문의 내용을 선정하면서 소설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소개문의 내용과 체계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생활국어 1단원 ‘생활과 글쓰기’에서 제시된 바에 따른다.

활동 : 친구들에게 이 소설을 소개문을 써 보자.

(1) 활동목표 :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책 소개문을 쓸 수 있다.

(2) 활동 문항과 예시 답안

1. ‘원미동 사람들’을 읽기 전에

1-1. 소설의 제목을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을 연상했는가?

원미동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 원미동이 어디에 있는 동네인지 궁금하고 동네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궁금해졌다.

1-2. 제목을 보고 생각나는 경험이 있는가?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떠올랐다.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달라졌고 건설 회사 사람들과 외부사람들이 갑자기 오가면서 동네가 분주하고 소란스러워졌던 적이 있었다.

1-3. 소설과 작가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조사해 본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단편소설인줄 알았는데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큰 제목의 소설 중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 거였다. ‘원미동 사람들’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있는 ‘일용할 양식’외에도 ‘멀고 아름다운 동네’등 10가지의 이야기가 더 실려 있다. ‘원미동 사람들’은 작가가 1986년~1987년 동안 쓴 작품들을 모아서 낸 작품집이다. 작가인 양귀자씨의 다른 작품으로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들’과 ‘모순’, ‘슬픔도 힘이 된다’ 등이 있다.

2. ‘원미동 사람들’을 읽으면서

2-1. 소설을 읽으며 인물의 특성과 사건 전개 양상을 메모한다.

인물특성

경호네(김포슈퍼) :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김포 쌀 상회를 확장해 슈퍼로 개업했다. 친절하고 성실한 부부이다.

김반장(형제슈퍼) : 이름만 슈퍼이고 과일, 야채, 생필품 등 잡다한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구멍가게를 운영한다. 김반장은 28살 싹싹한 청년이지만 집안이 어려워 많은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억척스럽고 거친 면이 있다.

고흥덕(강남부동산) : 자기 손에 떨어지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고 눈치 없이 악삭 빠르다.

싱싱 청과물 사내(싱싱청과물) : 상황파악이 느리고 치밀하지 못하다.

시내엄마(씨니전자) : 인정있고 경우에 밝게 행동하려고 한다.

사건 전개 양상

발단 : 사건은 연말에서 설날까지 진행된다. 처음에는 경호네 김포 쌀 상회가 가게를 확장하여 부식을 취급하면서 형제 슈퍼와 판매 품목이 겹친 것이 발단이였다.

전개 : 형제 슈퍼 김반장은 경쟁을 위해 쌀과 연탄을 들여 놓게 되고 두 가게는 가격 할인 경쟁을 시작한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골집의 눈치를 보다가 두 가게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그때그때 더 싼 곳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면서 두 가게는 이윤이 남지 않을 지경까지 가격을 내리고 시름은 깊어진다.

위기 : 그 상황에서 동네 형편을 모르는 싱싱청과물이 새로 개업한다. 싱싱청과물이 부식을 판매한다.

절정 : 형제슈퍼와 김포슈퍼는 휴전협정을 맺은 뒤 담합하여 가격을 내려서 싱싱청과물을 공격한다. 결국 대놓고 장사를 방해하는 김반장에게 싱싱청과물 사내가 달려가서 싸움이 벌어진다. 싸움 뒤 싱싱청과물 사내는 구정 대목을 맞아 들여놓은 과일을 처분하기 위해 리어카 행상에 나서고 동네 사람들은 김반장과 경호네가 지독하다고 수근거린다.

결말 : 싱싱청과물 자리에 씨니전자와 같은 업종인 전파상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여운을 남기고 이야기는 끝난다.

2-2. 소설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메모한다.

소설에 등장한 사건은 도시 변두리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었다. 이기적인 경쟁 속에 한 가게가 결국에는 문을 닫고 불쌍하게 동네를 떠난다. 이것을 보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 “왜 이렇게 장삿길로 빠지는지 몰라.”라는 말에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렇지요.”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를 미루어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주제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 정도가 아닐까 한다.

2-3. 소설의 배경의 특성을 메모한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80년대이다. 전파상, tv안테나, 유선방송, 쌀 상회, 연탄 등의 단어로 80년대 사회의 모습이 나타난다. 공간적 배경은 (부천시) 원미동 23통 5반이라고 나온다. 변두리의 소도시이고 대부분 작은 가게를 하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등장인물들이 살고 있는 동네이다.

3. ‘원미동 사람들’을 읽고 나서

3-1. 소설에서 인상 깊은 인물이 있는가? 소설에서 성격을 묘사한 부분을 찾고, 그 인물의 성격을 정리해보자.

주요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고흥덕의 행동이 어쩐지 인상 깊다.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형제 슈퍼에서 산 비누를 물리고 그 즉시로 김포 슈퍼에서 싼 값으로 비누를 샀다고 해서 동네 여자들 구설수에 올라 있는 고흥덕이었다.”에서 고흥덕이 몇 십원의 이익에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참 씩씩하면서도 공감이 갔다. 나도 옷을 샀는데 며칠 뒤에 똑같은 것을 몇 천원 더 싸게 파는 곳을 봤었다. 그때 환불하고 다시 사고 싶었지만 차마 환불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만뒀던 적이 있어서 고흥덕의 뻔뻔함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3-2. 소설의 배경과 주제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소설의 배경은 주제인 ‘고단한 서민들의 삶의 모습’과 ‘더불어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것 같다. 시대는 1980년대는 작가가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등장했겠지만 특별히 공간적 배경이 변두리의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작은 상가가 많은 동네여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주제와 이어지는 것 같다.

3-3. 이 소설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활동 2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문을 쓰기 위한 개요를 짜보자.

소설 소개이니까 소설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작가 소개, 소설의 줄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 소설에 대한 내 생각을 덧붙여서 소설을 소개해 보겠다.

처음 : 소설의 제목으로 연상했던 생각, 소설관련 정보들

중간 : 소설의 줄거리, 등장인물에 대한 나의 평가, 소설 배경의 특징

끝 : 주제에 대한 내 생각과 소설에 대한 감상

3-4. 개요를 토대로 소개문을 작성한 후 수정하여 소설 ‘원미동 사람들’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

이웃들의 이야기, 원미동 사람들

처음에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보고 원미동이 어디에 있는 동네인지, 동네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궁금해졌다. 동네 사람들을 떠올리니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떠올랐다.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건설 회사 사람들과 외부사람들이 갑자기 오가면서 동네가 분주하고 소란스러워졌던 적이 있었다. 원래 이웃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도 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연작소설 10편중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야기에 하나에 해당한다. 소설책 ‘원미동 사람들’은 작가가 1986년~1987년 동안 쓴 작품들을 모아서 낸 작품집이다. 작가인 양귀자씨의 다른 작품으로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과 ‘모순’, ‘슬픔도 힘이 된다’ 등이 있다.

소설의 내용은 원미동이라는 도시 변두리 동네에서 생긴 일이다. 처음에는 경호네 김포 쌀 상회가 가게를 확장하여 부식을 취급하면서 근처의 형제 슈퍼와 판매 품목이 겹친 것이 발단이였다. 형제 슈퍼 김반장은 경쟁을 위해 쌀과 연탄을 들여놓게 되고 두 가게는 가격 할인 경쟁을 시작한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골집의 눈치를 보다가 두 가게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그때그때 더 싼 곳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면서 두 가게는 이윤이 남지 않을 지경까지 가격을 내리고 시름은 깊어진다. 그 상황에서 동네 형편을 모르는 싱싱청과물이 새로 개업한다. 싱싱청과물이 부식을 판매한다. 형제슈퍼와 김포슈퍼는 휴전협정을 맺은 뒤 담합하여 가격을 내려서 싱싱청과물을 공격한다. 결국 대놓고 장사를 방해하는 김반장에게 싱싱청과물 사내가 달려가서 싸움이 벌어진다. 싸움 뒤 싱싱청과물 사내는 구정 대목을 맞아 들여놓은 과일을 처분하기 위해 리어카 행상에 나르고 동네 사람들은 김반장과 경호네가 지독하다고 수근거린다. 싱싱청과물 자리에 써니전자와 같은 업종인 전파상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여운을 남기고 이야기는 끝난다.

연작소설이니까 이다음 이야기에는 써니 전자가 사건의 중심이 되리란 암시를 남긴 것 같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내가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고흥덕이었다. 고흥덕이 몇 십원의 이익에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참 씩씩하면서도 공감 이 갔다. 나도 옷을 샀는데 며칠 뒤에 똑같은 것을 몇 천원 더 싸게 파는 곳을 봤었다. 그때 환불하고 다시 사고 싶었지만 차마 환불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만뒀던 적이 있어서 고흥덕의 뻔뻔함이 특별하게 다가온다.

시대적 배경은 1980년대인데 전파상, tv안테나, 유선방송, 쌀 상회, 연탄 등의 단어로 80년대 사회의 모습이 나타난다. 공간적 배경은 (부천시) 원미동 23통 5반이라고 나온다. 변두리의 소도시이고 대부분 작은 가게를 하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등장인물들이 살고 있는 동네이다. 이런 배경은 주제인 ‘고단한 서민들의 삶의 모습’과 ‘더불어 살기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의 것’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것 같

다. 시대는 1980년대는 작가가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등장했겠지만 특별히 공간적 배경이 변두리의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작은 상가가 많은 동네여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주제와 이어진다.

이 소설은 결국 ‘더불어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싸움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경쟁 이었다. 그 이기적인 경쟁 속에 한 가게가 결국에는 문을 닫고 동네를 떠난다.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이다. 이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소설로 추천하고 싶다.

(3) 활동 과정 및 방법

1. 소설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2. 소설 내용을 면밀히 읽으면서 인물, 사건, 배경의 특징을 찾아본다.
3. 주제,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소개문의 개요를 쓴다.
4. 개요를 바탕으로 소개문을 작성한다.
5. 소개문의 내용이 적절한지 형식을 점검하고 고쳐쓴다.
6. 동료와 상호 평가 후 자기 평가 한다.
7. 완성작을 발표한다.

(4) 지도상의 유의점

소개문의 대상 독자를 한정시켜준다. 아직 이 소설을 읽지 않은 동급생을 상정하여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소개문 쓰기는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글쓰기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형식이나 내용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다. 활동 1, 2에서 정리한 내용을 활용하여 활동3의 글쓰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평가는 상호 평가와 자기 평가를 실시하고 추천 받은 작품을 발표하도록 한다.

(5) 평가 기준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부족하다	자기평가
소개문의 형식상 적절한가?				
문장이 매끄럽고 이해하기 쉬운가?				
내용이 적절하고 인과관계가 바른가?				

(6) 교수 학습 지도안 예시

읽기 전 활동인 활동 1은 수업 전 미리 과제로 제시하고 소설을 읽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오게 한다. 읽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활동 2를 시행한다. 활동 3은 다음 차시에 진행하여 개요작성과 글쓰기를 위한 시간을 적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대단원명	3. 독서와 사회	소단원명	(2)원미동 사람들	차시	1/3
대단원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을 수 있다 ·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소설 원미동 사람들을 읽고 사회, 문화적 상황을 말할 수 있다.				
단계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전시 학습 확인 및 학습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및 학습 내용 설명	학습 목표 확인		5분	
전개	활동1	배경지식 공유 지도	미리 준비한 소설 정보와 제목에 대한 인상을 발표	30분	PPT 학습지

활동2	소설을 읽으면서 내용항목 정리 지도 -사건 양상과 구성 단계 -소설의 주제와 배경 특성	소설의 단계별 내용 파악, 정리하여 메모 후 발표 주제와 배경의 효과 메모, 발표		
활동 3-1 3-2	소설 읽은 후 인상깊은 인물 성격 정리 지도 주제와 배경의 관계와 효과 지도	소설 읽은 후 인상 깊은 인물 선정하여 특징 메모, 정리, 발표. 주제와 배경의 연관성에 대해 메모, 발표.		
정리	수업 내용 정리 차시 예고	차시 활동 인지	10 분	

대단원명	3. 독서와 사회	소단원명	(2)원미동 사람들	차시	2/3
대단원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을 수 있다 ·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내용을 토대로 소개문을 작성할 수 있다.				
단계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전시 학습 확인 및 학습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및 학습 내용 설명	학습 목표 확인		5분	
전개	글 형식 제시	소개문의 요건 제시		35 분	PPT (소개문 요건 제시) 학습지
	활동 3-3	소개문을 위한 개요 작성 지도	소설을 읽고 소개문의 요소에 맞는 내용 정리		
	활동 3-4	소개문 작성 지도	소개문 작성		

	평가표	평가표를 사용해 기사문 상호 평가 지도	상호 평가 후 자기평가 실시 작성한 글 발표	
정리		글쓰기 활동에 대한 평가, 격려 차시 예고	차시 인지	5분

2. 기사문 쓰기

‘기사문 쓰기’는 소셜 속 장면, 사건 설정하여 기사문을 작성하는 활동이다. 소셜 속에 나타난 극적 갈등이나 사건들은 기사문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 소셜 속의 사건을 소재로 기사문을 작성하면 더 심층적이고 세밀한 소셜 읽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사문은 교과서에서 종종 읽기 재료로 다루지만 학생들이 직접 기사문을 작성할 기회는 많지 않다. 기사문을 직접 써 보는 것이 기사문이라는 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셜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포착하여 이를 묘사한 앞 뒤 정황을 토대로 기사문을 작성해 보게 하면 소셜 속 인물의 행동의 인과 관계에 대해 면밀히 살펴 문학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 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활동 : 형제슈퍼의 김반장과 싱싱청과물 사내가 싸운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문을 써보자.

(1) 활동목표 : 기사문의 작성원칙에 따라 소설 속의 사건을 기사문으로 표현 할 수 있다.

(2) 활동 문항과 예시 답안

활동 1은 '소개문 쓰기'의 '읽기 전 활동'과 문항이 동일하므로 예시답안은 생략한다.

1. '원미동 사람들'을 읽기 전에

1-1. 소설의 제목을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을 연상했는가?

1-2. 제목을 보고 생각나는 경험이 있는가?

1-3. 소설과 작가, 시대적 배경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조사해 본다.

2. '원미동 사람들'을 읽으면서

2-1. 시간 순에 따른 사건 재배열

발단 : 사건은 연말에서 설날까지 진행된다. 처음에는 경호네 김포 쌀 상회가 가게를 확장하여 부식을 취급하면서 형제 슈퍼와 판매 품목이 겹친 것이 발단이었다.

전개 : 형제 슈퍼 김반장은 경쟁을 위해 쌀과 연탄을 들여 놓게 되고 두 가게는 가격 할인 경쟁을 시작한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골집의 눈치를 보다가 두 가게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그때그때 더 싼 곳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면서 두 가게는 이윤이 남지 않을 지경까지 가격을 내리고 시름은 깊어진다.

위기 : 그 상황에서 동네 형편을 모르는 싱싱청과물이 새로 개업한다. 싱싱청과물이 부식을 판매한다.

절정 : 형제슈퍼와 김포슈퍼는 휴전협정을 맺은 뒤 담합하여 가격을 내려서 싱싱

청과물을 공격한다. 결국 대놓고 장사를 방해하는 김반장에게 싱싱청과물 사내가 달려가서 싸움이 벌어진다. 싸움 뒤 싱싱청과물 사내는 구정 대목을 맞아 들어놓은 과일을 처분하기 위해 리어카 행상에 나서고 동네 사람들은 김반장과 경호네가 지독하다고 수근거린다.

2-2. 사건의 주요인물은 누구인가?

경호네(김포슈퍼) :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김포 쌀 상회를 확장해 슈퍼로 개업했다. 친절하고 성실한 부부이다.

김반장(형제슈퍼) : 이름만 슈퍼이고 과일, 야채, 생필품 등 잡다한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구멍가게를 운영한다. 김반장은 28살 씩씩한 청년이지만 집안이 어려워 많은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억척스럽고 거친 면이 있다.

고흥덕(강남부동산) : 자기 손에 떨어지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고 눈치 없이 약삭 빠르다.

싱싱 청과물 사내(싱싱청과물) : 상황파악이 느리고 치밀하지 못하다.

시내엄마(씨니전자) : 인정있고 경우에 맞게 행동하려고 한다.

2-3.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절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처음에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확장을 하여 형제 슈퍼와 판매 품목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형제 슈퍼도 김포슈퍼의 쌀과 연탄을 취급하게 되었고 두 가게는 손해를 보면서 장사할 정도로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며 갈등 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새롭게 싱싱청과물이 생겨서 경쟁에 뛰어들자 두 가게는 협정을 하고 싱싱청과물을 같이 공격해서 싱싱청과물 사내가 김반장에게 싸움을 걸게 되고 주먹다짐까지 이어진 것이다.

2-4. 사건은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싸움은 소설의 구성 단계에서 갈등의 최고조인 절정에서 일어난다. 누적되어왔던 갈등이 위기에서 새로 등장한 싱싱청과물로 더 커졌다가 결국 몸싸움이라는

사건으로 터지게 되는 것이다. 싸움이 끝나고 싱싱청과물이 문을 닫고 두 가게는 가격 담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3. '원미동 사람들'을 읽은 후

3-1. '싸움'을 보도하는 기사문을 작성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사건의 어떤 면을 주로 다룰 것인가?

사건 후에 싱싱 청과물 사내가 동네를 떠났다는 것에 주목해서 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의 원인과 결과 위주로 다룰 것이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정리해 보자.

누가 : 김포슈퍼 경호네, 형제슈퍼 김반장, 싱싱청과물의 사내

언제 : 연말~2월 전

어디서 : 원미동 23통 5반

무엇을 : 몸싸움을

어떻게 : 경호 아버지가 김반장의 편에 서서 2대 1로 싱싱 청과물 사내와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다짐으로 몸싸움을 함

왜 : 김포슈퍼와 형제슈퍼가 출혈 할인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싱싱청과물이 개업을 해서 뛰어드니까 두 가게가 담합을 해서 싱싱청과물의 장사를 방해해서

3-2. 마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제, 부제, 전문, 본문의 형식을 갖춘 기사문을 작성해 보자.

표제 : 형제·김포 연합 VS 싱싱, 싱싱청과물의 패배로 끝나다.

부제 : 형제슈퍼와 김포슈퍼의 등쌀에 싱싱청과물 결국 폐업

전문 : 1월 중순 개업한 싱싱 청과물이 형제 슈퍼와 김포슈퍼의 담합 공세에 몸싸움까지 벌였으나 결국 패배하고 약 보름 만에 가게 문을 닫았다.

본문 : 1월 말, 원미동 23통 5반 싱싱 청과물 앞에서는 이웃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며칠간 형제슈퍼와 김포슈퍼가 가격 담합 공세로 싱싱 청과물을 휘방 놓았던 것이 원인이다. 형제슈퍼의 김반장은 싱싱청과물에서 흥정하는 사람에게 한

드마이크까지 동원해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김포슈퍼를 선전해주었다. 이에 격분한 싱싱청과물 사내가 김반장에게 쫓아갔다. 김포슈퍼의 경호네까지 싸움을 거들고 나서자 싱싱청과물 사내가 그만 목혀둔 감정을 폭발시키며 따져 물었다. 흥분한 싱싱청과물 사내가 김반장의 멱살을 잡으면서 결국 세 가게의 경쟁은 이웃간의 주먹다짐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이 싸움은 원미 지물포 주씨의 적극적인 만류로 일단락되었다. 싸움을 구경했던 동네주민들은 다음날 싱싱청과물 사내가 리어카 행상으로 과일을 팔러 나서자 경호네와 김반장에게는 비난여론이, 싱싱 청과물 사내에게는 동정론이 일었다.

싱싱 청과물 사내가 개업한지 보름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좀 더 오래된 갈등이 그 원인이다. 작년 연말, 김포 쌀 상회가 쌀과 연탄에 부식까지 취급품목을 확대하여 김포슈퍼로 확장개업 하였다. 그러자 기존에 부식을 취급하던 형제슈퍼가 쌀과 연탄을 들여놓았고 두 가게는 제 살 깎아먹기식 할인 경쟁을 벌였다.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경호네와 김반장은 속이 상하고 피폐해진 상태였고 그 때 이런 동네 사정을 모르던 싱싱청과물이 개업했던 것이다. 김반장은 이에 경호네에 휴전을 제의하고 나섰고 목격자에 따르면 둘이 공단 쪽 돼지갈비집에서 술을 마시며 의논했다고 한다. 둘이 동맹이 되어 싱싱청과물을 공격했으니 싱싱청과물 사내로서는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한셈이다.

동네 사람들은 김포와 형제가 경쟁을 할 때는 눈치를 보면서도 푼돈 아끼는 재미에 경쟁을 은근히 즐겼지만 싱싱 청과물이 망하고 나니 김반장과 경호네가 심했다고 평했다. 특히 시내엄마는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였을라구. 이 동네가 어디 장사해서 돈 벌곳이되나? 그깟것 같이 좀 먹고 살면 어때서. 너무 잔인해.”라고 말했다.

(3) 활동 과정 및 방법

1. 소설 내용 이해 수업 후 실시한다.
2. 소설 내용을 면밀히 읽으면서 싸움의 경위를 조사한다.

3. 사건의 선후, 인과 관계에 대해 정리한 후 사건을 재구성해본다.
4. 등장인물의 ‘싸움’을 보도하는 기사문을 작성한다.
5. 기사문의 요건에 맞추어 썼는지 형식을 점검한다.
6. 동료와 상호 평가 한다.
7. 완성작을 발표한다.

(4) 지도상의 유의점

학생들이 과제를 너무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여기지 않도록 신문의 성격을 한정시켜준다. 소규모 지역신문의 사건난이나 마을신문 정도로 성격을 잡아주고 활동을 격려한다. 소셜 속 싸움의 경위를 파악하는 요점에 관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사건을 재구성 할 수 있게 유도한다. 기사문의 요건을 지키는데 유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조원모두가 기사문 작성에 성실히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상호 평가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못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있게 한다.

(5) 평가 기준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부족하다	자기평가
기사문의 형식이 잘 지켜졌는가?				
문장이 매끄럽고 이해하기 쉬운가?				
내용이 적절하고 인과관계가 바른가?				

(6) 교수-학습지도안 예시

대단원명	3. 독서와 사회	소단원명	(2)원미동 사람들	차시	1/3
대단원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을 수 있다 ·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소설 원미동 사람들을 읽고 배경과 사건단계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단학습 계요소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 입	전시 학습 확인 및 학습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및 학습내용 설명		학습 목표 확인	5분	
	활동1	배경지식 공유 지도	미리 준비한 소설 정보와 제목에 대한 인상을 발표		
전 개	소설을 읽으면서 내용항목 정리 지도 -사건 단계별 재배열 -소설 인물과 사건 특성		사건의 구성단계 재배열, 정리 후 발표 주요인물과 사건 특성 메모 후 발표	30분	PPT 학습지
	활동2				
정 리	수업 내용 정리 차시 예고		차시 활동 인지	10분	

대단원명	3. 독서와 사회	소단원명	(2)원미동 사람들	차시	2/3
대단원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을 수 있다 ·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소셜 원미동 사람들의 내용을 토대로 기사문을 작성할 수 있다.			
단 계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 입		전시 학습 확인 및 학습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및 학습 내용 설명	학습 목표 확인	5분	
전 개	글 형식 제시	기사문의 요건 제시	기사문의 요건 인지	35분	PPT (기사문 요건 제 시) 학습지
	활동 3-1	기사문을 위한 개요 작성 지도	소설을 읽고 기사문의 요 소에 맞는 내용 정리		
	활동 3-2	기사문 작성 지도	기사문 작성		
	평가표	평가표를 사용해 기사문 상호 평가 지도	상호 평가 후 자기평가 실 시 작성한 글 발표		
정 리		글쓰기 활동에 대한 평가, 격려 차시 예고	차시 인지	5분	

V. 결 론

본 연구는 소설 텍스트 읽기 수업에 글쓰기 활동을 통합하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읽기와 쓰기가 상호 보완적인 언어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상 각각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는 종합적이고도 분석적인 사고를 요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또한 사전, 도중, 사후의 단계에서 비슷한 요소를 보이는 과정적 유사성을 지니기 때문에 독자와 작가는 독해와 작문에 앞서 비슷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읽기와 쓰기의 이러한 단계별 관련 요소의 일치점에서 읽기와 쓰기 통합 교육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읽기와 쓰기는 언어 사용 기능 교육으로 따로 설정되어 있지만 통합하여 실제적인 활동 속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방법으로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설명적인 글쓰기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문학, 즉 소설 텍스트와 읽기, 쓰기 교육의 통합 방법은 숙련된 필자의 특성이 통합 언어 교육에 의해 신장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읽기와 쓰기 교육의 통합은 읽기와 쓰기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지도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Squire의 읽기와 쓰기 단계별 관련요소를 토대로 하였다.

앞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읽기 교재로 제시되는 소설이 총체적 삶의 반영이자 교육적으로 적합한 텍스트임에 착안하여 소설 텍스트 이해를 위해 정리한 인물, 사건, 배경 등의 요소를 토대로 설명적 글쓰기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 했다. 소설읽기를 통해 글쓰기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통합방법은 소설 읽기 수업의 전 중 후 단계

별로 설정한 문항을 통해 쓰기 내용을 마련하여 소개문과 기사문 쓰기 활동을 설정하였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설정한 활동을 중학교 국어 3학년 1학기 과정의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을 텍스트로 하여 적용한 예시 문항을 구성했다. 소설 읽기를 통한 내용 이해 결과를 소개문 쓰기에 활용한다. 또 소설의 사건구조를 바탕으로 기사문을 작성하여 읽기 수업의 전·중·후 단계를 통한 쓰기 지도 방안을 설정하였다. 쓰기 활동의 구체적인 문항과 답안을 제시하고 학습의 목표와 지도상의 주의사항, 평가표와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상에서 다루고 있는 소설 텍스트를 제재로 하여 교과서 체계에 적합한 형태로 활동을 구성했기 때문에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읽기와 쓰기 통합 교육 방안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지도 방법의 내용과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착안하여 소설 읽기 지도에 쓰기 활동을 연계한 통합 방안을 구성하였다. 읽기와 쓰기 통합의 이론적 배경은 소설지도에서 쓰기를 내용 이해와 내면화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과 읽기 지도의 전·중·후 단계에서 소설의 깊고 넓은 이해에 쓰기활동을 활용하는 것을 토대로 하였다. 읽기와 쓰기의 진행과정 단계에서 접점을 찾아 통합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여 실제 활동을 통해 읽기와 쓰기 기능을 함께 신장할 수 있다.

둘째, 소설 텍스트를 활용하여 소개문 쓰기, 기사문 쓰기와 같은 활동을 시도하여 소설 읽기 수업의 배경지식 활성화와 내용 이해 단계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쓰기 활동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소설 텍스트를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논설문 쓰기를 제시하거나 읽고 난 후의 감상문 쓰기로만 유도했던 것과는 다른 관점의 시도라는 의의가 있다.

셋째, 읽기 전 단계의 배경지식 활성화, 읽기 중 단계의 내용 이해, 읽기 후 단계의 글의 의미 심화 확장을 쓰기 활동의 과정으로 지도하여 텍스트에 대한 주의 깊은 이해와 소설 구조, 인물, 배경, 갈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읽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설 텍스트 읽기와 글쓰기를 통합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체계에 맞추어 제시하였기 때문에 수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 교과서 단원 마무리의 학습활동의 유형으로 구성하였고 글쓰기 단계도 생활국어와 국어 교과서의 기존 예시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 연구 방안은 소설 텍스트 읽기와 글쓰기 통합 교육 활동 방법을 제안하여 쓰기 교육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다양한 쓰기 유형을 다 다루지 못하고 소개문 쓰기와 기사문 쓰기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학습자의 문제 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 신장을 도모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 언어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교육인적 자원부, 『중학교 1·2·3학년 국어·생활국어 교과서』, 2003.
- 교육인적자원부, 『7차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 1997.
- 교육인적 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1-2, 3-1, 2003.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4.
- 권혁준,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 김재복, 『통합교육과정』, 교육과학사, 2007.
- 박덕유, 『작문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1998.
- 박영목, 『국어교육론』, 한국문화사, 2005.
- 박영목·한철우·윤희원,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1.
- 신헌재·이재승,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그 원리와 방법』, 서광학술자료사, 1994.
- 이성은, 『총체적 언어 교육』, 창지사, 1994.
- 이재승,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교육과학사, 2006.
- 한국 교육 개발원,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83.
- 한철우 외, 『과정중심 독서 지도』, 교학사, 2001.
- _____, 『문학 중심 독서 지도』, 대한 교과서, 2001.

2. 논문

- 박병선,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 지도 방법론 모색」,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주영,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서정아, 「영역 통합적 쓰기 지도 방안」,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염창권, 「문학교재 읽기의 통합적인 지도방안」, 『한국언어문학』 35, 한국언어문학회, 1995.

- 윤금숙, 「논술 지도를 위한 소설 수업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윤미옥,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윤정옥, 「읽기와 쓰기의 통합에 의한 설명적 글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 이정민, 「중학생 작문의 수준별 양상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재승, 「총체적 언어 교육의 의의와 과제」, 『청람어문학』 16, 청람어문학회, 1996.
- _____, 「총체적 언어교육에서 총체성의 의미」, 『청람어문학』 17, 청람어문학회, 1997.
- 이지윤, 「통합적 언어활동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후석, 「읽기·쓰기를 통합한 소설지도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